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담임목사 이 동 관

주일에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 찬 양 다함께
* 입례송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교독문 35(시편84)
찬 송 70장
기 도 김주영 협동장로 | 1·2·3부
안상헌 리더 | 청년부
성경봉독 말 3:16-4:6(구1330) | 1·2·3부
신 19:1-13(구291) | 청년부
찬 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 1부
사랑의 주님 | 2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3부
헌 금 315장(헌금송)
봉헌기도 인도자
설 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에게-이동관 목사 | 1·2·3부
도피성- 김종명 목사 | 청년부
기 도 설교자
* 찬 송 그날이 도적같이 | 1·2·3부
나의 피난처 예수 | 청년부
* 축 도 설교자
교회소식 인도자
* 폐회송 다함께

Daedong
Presbyterian
Church

since 1948.1.9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주기도

- * 신덕수 장로 | 1·2·3부
* 김원근 장립집사 | 청년부

주일찬양예배

14:30 | 인도 조태화 목사

목 도 다함께

찬 송 67장

기 도 김명완 집사

성경봉독 사 32:9-20(구1004)

찬 양 주를 봐요 / 할렐루야 찬양대

설 교 왕의 자리 / 조태화 목사

특별찬송 5여전도회

교회소식 이동관 목사

찬 송 183장

축 도 이동관 목사

다음주 기도 | 김종희 집사

다음주 특송 | 4여전도회

수요예배

19:00 | 인도 김성진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425장

기 도 최영미 권사

성경봉독 히 11:29(신366)

찬 양 주님이 필요합니다 / 마리아찬양대

설 교 믿음으로 건너가기 / 김성진 목사

찬 송 428장

주 기도 다같이

다음주 기도 | 김서영 권사

성경통독 안내

30일(주)	31일(월)	9월1일(화)	2일(수)
5권1강	마1-3	마4-6	마7-9
3일(목)	4일(금)	5일(토)	
마10-12	마13-15	마16-18	



말씀영상



오디오성경

화요종보기도회

20:00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 인도 이동관 목사

찬양과 뜨거운 합심기도

새벽기도회

05:00 | 인도

월-토:교역자
주 일:담임목사

8/31 (월)	9/1 (화)	9/2 (수)	9/3 (목)	9/4 (금)	9/5 (토)	9/6 (주일)
사39	삿1	삿1	삿1	삿2	사2	삿3

다음주 기도 | 안현수 장립집사

2026년 9월의 행사계획

- 하반기 구역개강(예배8일/월)
- 양육훈련(2일부터)
- 수성노회 남전도회 주관 선교부흥성회(19일~20일/토~주일)

봉사위원



8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안 내 위 원	박상호 김상열 김미조 김미자A	최인철 윤정웅 곽옥연 윤영미
헌 금 위 원	강부식 이상만 서상일 오소택 임광수 천민주 홍성심 손명희 오은숙 이민영 박하기B	정원수 황인성 김종휘 유대중 김창환 심지현 이상희 김혜경B 한은정 윤귀옥

필리핀 노경백 선교사

1. 하나님께 드러진 The Well

2026년 1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의 건축 여정을 마치고, 지난 2026년 7월 30일(목) 감사와 기쁨 가운데 The Well 선교센터 한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 물이 새어 방수가 필요 한 곳, 막혀서 뚫어야 할 곳, 더 다듬어야 할 곳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역의 현장도 제게는 꼭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모리아 교회와 약 1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쳐야 할 곳도, 막힌 곳을 뚫어주어야 할 때도, 오랜 시간 품고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만큼 잘 돌보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듯,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도 인내와 사랑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이제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생명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우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 어린이 사역, WELLSPRING

지난 7월 31일(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어린이 사역 Wellspring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오전·오후반 약 50명의 아이들이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보다 Wellspring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진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가장 어린 선생님은 15살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조금은 특별한 모습이지만, 이들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의 열심과 가능성이 Wellspring을 통해 마치 화산처럼 한차례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공부하고 준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선생님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잘 양육하여 단순한 '교사'를 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 에스겔 47장, 현실이 되다

2026년 8월 9일 주일은 잊지 못할 주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날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밭과 무를, 허리를 지나 마침내 생명의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모리아 교회도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땅길 설교한 밭섬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이 온통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한 '생명의

강'은 이런 물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무릎을 넘어 허리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상황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길에서 아이들은 수영하고 장난을 쳤고, 집에 물이 들어왔는데도 청년들은 "이 정도면 큰 홍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충격적인 재난의 현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홍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할 곳이 되어주고, 함께 울고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리아 교회와 The Well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4. 함께 자라는 청년들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필리핀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The Well에서 함께 숙식하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동안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여러 사역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필리핀 청년들이 섬김을 받으며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갓 지어진 The Well에서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웃고 교제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의 청년들을 훈련하고 격려하여 자신의 땅을 섬기는 선교사로 세워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청년들이 기도도 연결될 이 관계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현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영적 자양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 가운데 모리아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해를 입은 가정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 한당된 The Well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 회복되고 생명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우물로 쓰임 받도록.
- 약 50명의 아이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청소년·청년 교사들도 섬김을 통해 믿음의 제자로 함께성장하도록.
- 필리핀 청년들을 자신의 이웃과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과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부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양육 훈련 안내

양육 훈련명	일시 및 장소	강사
어? 성경이 어려워지네!	수요일 저녁 8:00/예루살렘홀	신윤자 교육전도사

알림

1. 정기제직회(예고)

- 일시: 9월 6일(주일) 오후찬양예배 후

2. 하반기 구역개강예배(예고)

- 일시 및 장소: 9월 8일(화) 오전 10시/본당

3. 대구 경북 쿼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예고)

- 일시 및 장소: 9월 12일(토) 오후 2시/반월당역 21번 출구 앞 도로(동양생명)

※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 수성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선교부흥성회(예고)

- 일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6:00, 9월 20일(주일) 오후 2:30
- 장소: 대동교회
- 강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교우동정

1. 장례: (소망3) 서영미 시무권사의 부친(이동곤 장립집사의 장인)소천, 8월27일 장례

다음 주 예고

1. 9월 봉사위원

9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안 내 위 원	박윤환 김종철 임명순 채현숙	최기동 손대영 오지선 김숙이
헌 금 위 원	김상열 이상만 서상일 오순택 임광수 천민주 홍성심 손명희 오은숙 송귀순 오기랑	정원수 황인성 정지관 유대종 조현빈 윤정웅 심지현 이상희 김혜영B 한은정

*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외에 외부성경공부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어느 여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주일 낮뿐 아니라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예까지 나오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교 동창회에 나가서 절친이었던 친구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는 시아버지로부터 5층 빌딩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식모가 밥해 주고, 가정부가 청소해 주고, 자신은 헬스클럽이나 다니고 놀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나니 자기의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언제나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까?”하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하던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입원하자 병원에서 보호자가 같이 자는 침대에서 자면서 아이 밥을 주고 자기 밥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도는 그 밥을 먹으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민 14:28)’이라는 말씀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므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1990년대 말 호세 리마(J Lima)는 휴스턴 애스트로스(Houston Astros)의 투수로서 여러 해 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홈(home) 구장을 새로 지었을 때 리마는 머리끝까지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좌측 펜스가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측 펜스가 짧으면 타자에겐 유리하지만, 투수인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멘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데서 공을 제대로 던지기는 굴렸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새로운 구장에서 새로운 시즌이 개막되었는데

매년 평균 20승 이상하던 투수 리마는 그해 16패 투수로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생각하고, 말로서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면 우리 행동은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쓰카이치 쓰요시는 ‘마법의 말’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순히 이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감사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권순범 권순희 권은희 권중원 오지선 권진희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극자 김기방 김남기 김미조 김민영 김보연 · 강금옥
 김서영 김숙희 김예은 김옥경 김은중 김은정 김장연 김중균 · 이만형 김창환 김현심 김호정 남달연 도영희 도혜선 박성윤
 박영미 박종삼 박청자 방해주 백강진 서선학 서주영 손대영 · 김숙이 손명희 심정훈 안승관 · 이영자 유대현 윤문숙 윤선희
 윤영희 윤해정 이 구 이무하 이상금 이순자 이시형 이현자 · 김원한 장금분 정요한 차성도 최미향 최우영 최은영 최주용
 최혜주 표취사 한재순 조이제가노인복지센터 무명3명

감 사 헌 금 | 법사 | 강도현 구경자 권미나 김경란 김극자 김규장 · 김상미 김덕상 김동일 · 신영희 김보연 · 강금옥 김서영 김성진 김숙희
 김순향 김옥려 김은아 · 김문형 김은중 · 홍경숙 김한미 나대연 나예림 나예지 도영희 · 유대현 박승기 박승철 · 이정남 박의찬
 배미정 서상중 서선학 서정자 서주영 서지환 설경원 설경화 손동부 · 배성애 손정숙 신동원 · 이은영 신일원 심해동 · 김평화
 안창석 안해웅 염경복 오광택 오지선 유수연 윤해정 이동근 이무하 · 최혜주 이병돈 · 이화숙 이순자 이승희 이신일 아실근
 이영숙 이예진 이윤자 이정옥 이태순 이현자 · 김원한 임상근 전미혜 전향란 조진래 · 신상영 조운유 조유은 지승윤 차동훈
 최미향 최인철 · 정하림 최주용 · 김순향 최지옥 한은정 BBO동호분점 조이제가노인복지센터 무명5명
 | 개학 | 조수우 · 조민정 황미란 | 생일 | 김선연 설경원 | 성경양서 | 권순범 · 도혜선 | 성경학교 | 김민영
 | 수련회 | 정인수 최서윤 | 아들입상 | 김경숙C | 안송 · 최영미 | 인도 | 신은혁 | 입대 | 김명희

일 천 번 제 권진희 김경란 도정희 박은순 오광택 · 황미란 윤해정 장순식 장미희 무명1명
선 교 헌 금 권순범 · 도혜선 김경숙 김경숙 김극자 김분선 김숙희 김장화 김종엽 김현심 김효정 김희진 남달연 도영희 방미숙 방해주
 배미정 배정민 백유순 서선학 서정택 손일수 심지현 오지선 오창현 윤영희 윤해정 이광식 이기수 이상숙 이순자 이영자
 이효석 · 김현자 정다정 정다훈 정요한 정윤자 주은우 채현숙 표취사 황동식 황병하 황선영 다문화에배부 유치부
 조이제가노인복지센터

특별새벽기도헌금 김하비 소상원 정준창 한진화 무명1명

국내 지원교회 현황

가상교회 이준권 목사
 군선교회 김경숙 간사
 공유교회 김성수 목사
 김부교회 최침식 목사
 깊은샘교회 최태훈 목사
 관호교회 박창기 목사
 꿈이든교회 하승수 목사
 낙산교회 김성근 목사
 냉수한그릇 선교회 김동준 목사
 대구교통문화선교회 박영찬 목사
 대구지방경찰청경목실 조석원 목사
 대구학원복음화협의회 임호근 목사
 드림교회 장지현 목사
 말씀으로교회 이영주 목사
 문경새순교회 조창우 목사
 반석교회 윤정문 목사
 보배로운교회 김태명 목사
 봉곡교회 김갑식 목사
 봉산교회 김경태 목사

봉촌교회 조규현 목사
 뽕엘선교교회 조강성 목사
 샘물샘교회 윤희달 목사
 서넉도교회 박승덕 목사
 성주인촌교회 이돈규 목사
 승리하는교회 한병열 목사
 송산교회 최판동 목사
 새생명교회 박숙자 전도사
 아름다운교회 서기성 목사
 아름다운교회 홍상근 목사
 어수교회 이현중 목사
 열린교회 이경동 목사
 예수사랑교회 김은수 목사
 은목교회 김성무 목사
 은혜샘교회 김진원 목사
 이수교회 최창우 목사
 전흥교회 최준희 목사
 주사랑교회 김점용 목사
 주소망교회 오준석 목사
 중남교회 이만형 목사

지소제일교회 박노열 목사
 진동동행교회 장성 목사
 진사교회(소망의집) 김한곤 목사
 청송화정교회 최두희 목사
 칠곡남부교회 이유석 목사
 칠곡호국교회 김형국 목사
 토기장이교회 이상길 목사
 평안교회 김종섭 목사
 푸른동산교회 김성환 목사
 품어주는교회 윤치성 목사
 하늘선민교회 김진욱 목사
 하늘소망교회 안운철 목사
 하늘향기교회 이정환 목사
 함양안산교회 서보성 목사
 한국침선교회 최종민 목사
 형통한교회 양은실 전도사
 형통한교회 강선도 목사
 출사모션교회(새행로교회) 이예스더목사



일반헌금 | 농협 355-0505-0505-53 / **예금주** 대동교회
선교헌금 | 하나은행 192-890033-62004 / **예금주** 대동교회

*주일설교 내용을 공란에 메모하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 · 2 · 3부예배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 말 3:16-4:6(구1330)

경외: 사랑받는 사람의 당연한 선택 (말 1:2; 말 3:16)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 (말 3:16)

특별한 소유 (말 3:17)

아끼심 (말 3:17)

예고: 여호와와 날 (말 4:1-3)

성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말 4:1-3)

구약의 마지막 말 (말 4:6)

준비 (말 4:4-6)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사역

담임목사
이동관

부목사
이규철 김성진 김종영 조태화
여저여

여전도사
이향희 방미숙

교육전도사
강정은 박영혜 신윤자 조효정
김은성

장로사역

원로장로
박익찬 오수웅 신경의 최조웅

은퇴장로
박경규 박익석 박문웅 김동해
김동우 김덕수 김광영 오주석
차성도 김대년 최대원 김동의
김효정 박성우 노판석 김윤규
김대환 김중욱 김원식

사무장로
신덕수 심재욱 김동일 김대희
조성재 임상근 정인수 최기동
박상호 박윤희 신일규 최인철
박대익

협동장로
김주영

전임장로
이장우

찬양사역

지휘
할렐루야 |오현택 벤 엘 |조우석
시 온 |정요한 마리아 |권보경

피아노
할렐루야 |김미향B 벤 엘 |오윤진
시 온 |안 나 마리아 |이주영
새벽기도회 |이은영

오르간
할렐루야 |김문주 벤 엘 |강명아
시 온 |조민영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대동교회!

선교부 파송 및 해외선교 현황

감비아	몽골	정현길	태국	K국
선성수	신종호	유정훈	문진세	김요한
나이지리아	미국	구로아나기	김교일	T국
이능성	최승암	전격군인교회(한국)	이목훈	임동진
남아공	미얀마	박호기	송진호	서상협
양현	강대경	카자흐스탄	오성길	
정몽률	베트남	박진대	파라과이	
네팔	이창명	캄보디아	손경수	
윤은호	영국	천준상	필리핀	집계
대만	윤하민	윤성욱	박재형	파송: 4
김대우	이집트	케냐	김영권	협력: 47
라오스	조은 조	이종도	박호동	
김종훈	양형권	타지키스탄	남창수	
러시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국내)	한용식	
한성훈	나그네	엄은식	박재영	
김인규	이석기	장일영	주경배	
모로코	노수정	탄자니아	A국	
박두례	일본	김태현	이명일	
저스틴김	민수식		하성	

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05:00
주일예배 1부	08:00
2부	09:30
3부	11:30
청년부	13:30
주일찬양예배	14:30
다문화예배	11:30
수요예배	19:00
금요하늘문기도회	20:00

주일학교

영아부	10:00
유치부	09:30
유년부	09:30
초등부	09:30
중등부	09:30
고등부	09:30
청년부	13:30
장년부	13:20
여호수아청년부	13:30

찾아오시는 길

